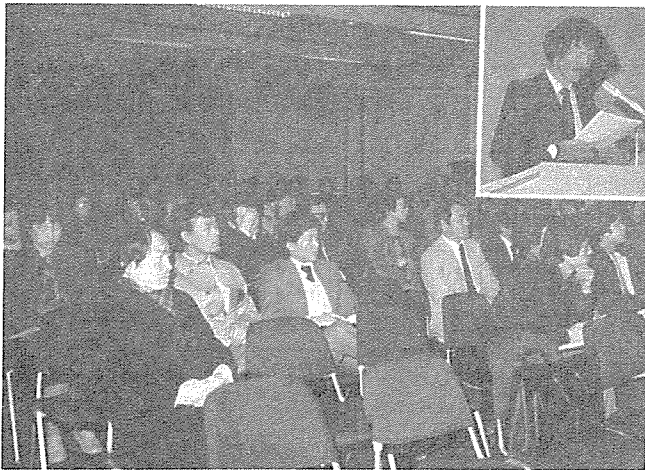


人間과 自然이 調和된 建築 필요

— 현대 건축가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 —



다름슈타트工科大学의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62년, 하바드大學에서 건축석사학위를 받은 독일의 저명한 아르놀트 괴르테(Arnold Körte)교수 초청 강연회가 지난 2월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남산에 위치한 독일문화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회와 주한 독일문화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나상기교수(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의 통역해설로 진행되었으며, 본회 회원 및 건축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괴르테교수의 강연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아르놀트 괴르테교수는 종래의 건축과 현대의 建築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오늘 날의 건축가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했다.

다음은 슬라이드를 이용해 강연을 이끌어 나간 괴르테교수의 말을 옮긴 것이다. / 편집자 /

대만·홍콩을 거쳐 방금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의 눈부신 발전상과 개발되고 건축되어 가는 현장을 직접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

앞으로 내가 얘기하려는 내용은 현재 독일에 있어서의 현대건축의 동향에 대해서이다.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독일의 본격적인 현대건축운동(Modern Architecture Movement)은 〈바우하우스〉운동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 운동은 국제적인 운동으로 번져, 그 운동의 주체였던 미스 반 데르 로오에나 모호리, 마이어 등은 시카고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브로야 등의 건축가들은 미국 동부에서, 그리고 월터 그로피우스는 교육자로서 하바드大學에 몸을 담기도 했으며 나아가서는 협동사무실을 조직하여 건축활동을 펴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뿌리를 잃어가고 있다. 흙냄새를 맡으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대신 초고층화되어 가는 삭막한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존해야 할 건물과 새로이 축조되는 건물에 대한 조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두 가지 형태이다. 예를 들면 헌것과 새것, 또는 늙음과 젊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슬라이드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 보고자 한다.

내가 그로피우스를 볼 때, 그는 사치를 모르는 소탈한 사람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국의 오래된 램브라라고 하는 허름한 자동차를 손수 몰고 다녔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의 선구자이며 하바드大學의 설계대학원에서 오랜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사람의 특징은 창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평이 나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의 특징이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우하우스校舍는 1925년, 독일의 Weimar에 세워진 건물이다. 교실·실습실·기숙사의 용도를 가진 건물들이 한 개의 통일된 건물 속에 담겨져 있다. 이 건물은 그로피우스 자신의 설계이며

크기는 대략 7백80여평 정도이다. 이 그림은 동독에 계신 나의 선친께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카드를 찍은 슬라이드이다. 이 카드는 독일의 중류 이상의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한 커피와 케익을 놓고 앉아 있는 장면이라든가 벨리비전이 아닌 피아노와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현대주택의 평면구성을 보자. 이는 외부의 발코니, 왼쪽의 침실, 그리고 부엌, 아래층의 거실이 있는 방법으로서 이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같은 추세이다.

또한 1929년에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중층의 집합주택과 오늘 날의 초고층화된 아파트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깊을 것 같다. 초고층화로 인해 현대도시들은 그 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조그마한 토끼장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울〉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 모든 나라의 대도시에서는 單獨住宅 등의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장사의 집도 아니면서 이상하리만큼 획일적으로 그 모양이 동일하다.

내용에 있어서도 인간 본연의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空間構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의 선전화라는 냄새가 물씬 풍기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스케일에 맞는 공간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와있다고 본다.

현재 독일에서는 보존해야 할 기존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의 경우, 독일의 전통적인 建築樣式을 가진 건물 옆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구건물과 신건물의 균형있는 조화, 이것이야말로 세계가 안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방법 건축법 등의 여러가지 제약을 무릅쓰고 인간과 자연을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축가들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